제1회
(청소년의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녹동중 의회사무과

2025년5월20일(화) 오후 2시 개식

제1회 청소년의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의원 선서
1. 폐 식

(14시17분 개식)

○**의사팀장 정유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회 녹동중학교 청소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 악)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반 주)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 념)

(주 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은 학생 여러분이 일일 의원이 되었으므로 의원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율 의원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율 의원님의 선서 구령에 따라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율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5월 20일

고흥군의회 청소년의회 의원 강한율

○**의사팀장 정유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녹동중학교 청소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녹동중학교 청소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4시22분 폐식)

제1회
(청소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 1호

녹동중 의회사무과

2025년5월20일(화) 오전 14시

의사일정

1. 제1회 녹동중학교 청소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AI 및 로봇 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3분 자유발언(장혜선 의원) ····· 2
o 3분 자유발언(김은찬 의원) ····· 3
o 3분 자유발언(박시은 의원) ····· 3
o 3분 자유발언(양채민 의원) ····· 4
o 3분 자유발언(김성원 의원) ····· 5
o 3분 자유발언(정유민 의원) ····· 5
o 3분 자유발언(선우송 의원) ····· 6
1. 제1회 녹동중학교 청소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7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7
3.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안(송하음 의원 외 3명 발의) ····· 7
4. AI 및 로봇 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박서윤 의원 외 3명 발의) ····· 10

(14시22분 개의)

○**의장 고준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녹동중학교 청소년의회 의장을 맡은 고준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이 자리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회 녹동중학교 청소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현우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연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연우입니다.

먼저 제1회 녹동중학교 청소년의회 임시회의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1일 청소년 모의의회 신청을 통해 올해 녹동중학교 청소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송하음 의원부터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대한 조례안과 박서윤 의원으로부터 AI 및 로봇 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혜선, 김은찬, 박시은, 양채민, 김성원, 정유민, 선우송 의원께서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분 자유발언을 경청하신 후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준석** 강현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o 3분 자유발언(장혜선 의원)

(14시25분)

○**의장 고준석**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3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혜선 의원입니다.

저는 편식을 줄이자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채소는 미뤄두고 고기만 골라 먹은 적 있으시죠?

그런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청소년기는 몸과 마음이 빠르게 자라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성장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70%가 편식을 한다고 합니다.

편식은 단순히 입맛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편식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먹지 않으면 비타민과 섬유질 섭취가 부족해져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기만 먹으면 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해 체중이 늘고, 심혈관 질환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편식을 줄일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싫다고 무조건 피하지 말고, 그 음식이 왜 중요한지 생각하며 한 입씩 시도해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봅시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3분 자유발언(김은찬 의원)

(14시27분)

○**의장 고준석** 장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차별을 차이로 바꾸는 사회를 만들자는 주제로 3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생김새도, 자라온 환경도, 생각하는 방식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이 다름이 종종 차별로 이어지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약 31.5%가 학교에서 외모, 성적, 가정 환경 등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차별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공감의 부족과 소통 단절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오해하고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복잡한 맥락보다 단순한 기준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차이를 존중할 수 없고, 소통하지 않으면 공감의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차별은 결국 서로를 알지 못한 채 단절되어 있을 때 생깁니다.

하지만 한 걸음 다가서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나누기 시작하면,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던 모습도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 서로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차별을 차이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3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3분 자유발언(박시은 의원)

(14시30분)

○**의장 고준석** 김은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시은 의원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학교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예방해야 할 문제입니다.

첫째,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친구의 외모, 말투, 취향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놀리거나 흉내 내는 행동은 결코 가벼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장난이었어 라는 말로 상처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을 잘 못하는 친구를 놀리는 대신 함께 연습해 주거나, 점심시간에 혼자 있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밥을 먹자고 말하

는 것, 자신과 생각이 다른 친구의 의견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존중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친구를 바라본다면, 우리 학교는 훨씬 더 따뜻하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실천이 가능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자, 다름을 인정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를 만들어 교실이나 복도에 게시하거나,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줄이기 위한 비속어 줄이기 캠페인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이 모이면 학교폭력을 줄이고, 서로 배려하는 긍정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폭력 없는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o 3분 자유발언(양채민 의원)

(14시32분)

○**의장 고준석** 박시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채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채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채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생들의 지나친 비속어 사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비속어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친구끼리 장난일 뿐이야!”,“요즘 애들 다 이 정도는 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과연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을까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비속어 사용은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 SNS나 채팅에서도 자연스럽게 비속어가 오갑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학생이 자신이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비속어는 단순히 듣기 불편해서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폭력, 차별, 혐오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 장애인, 특정 집단을 향한 비하 표현은 듣는 이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학교 전체의 언어문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속어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쓰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왜 문제인지 누군가에게 어떤 감정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둘째, 친구끼리 서로 지적해주는 문화도 필요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그 말은 좀 불편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그것이 진짜 친구를 배려하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언어는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비속어 없는 학교, 서로를 배려하는 언어문화.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이상으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o 3분 자유발언(김성원 의원)

(14시35분)

○의장 고준석 양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SNS 중독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청소년은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씩 SNS를 확인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공부하다가도,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사용은 집중력 저하, 수면 부족, 자존감 하락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독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어른들의 통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에 SNS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을 설정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1시간, 시간을 초과하면 앱을 종료하는 거죠.

둘째, SNS 대신 다른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 읽기, 운동, 악기나 그림 같은 활동은 SNS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함께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를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서로 인증하며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SNS는 분명 편리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구에 지배당하는 순간,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오늘, 이 발언이 우리 모두 스스로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o 3분 자유발언(정유민 의원)

(14시37분)

○의장 고준석 김성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민 의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정신건강지원 강화라는 주제로 3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슬픈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이 불안, 우울, 스트레스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

황입니다.

또한 친구, 가족, 선생님 등 주위에 말하고 싶어도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까 봐 망설이게 되는 현실입니다.

저 역시도 친구가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 지켜보면서 왜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 도움을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것처럼 치료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모든 청소년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익명으로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듯, 마음이 아플 때도 당연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앞으로 세대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3분 자유발언(선우송 의원)

(14시39분)

○**의장 고준석** 정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우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우송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자는 주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많은 학생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늘 피곤하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자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손에 잘 잡히지 않는 나날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은가요?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우리는 점점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나는 이걸 왜 하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어떻게든 넘기자는 생각만 남게 됩니다.

이 무기력함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학생이 정신적 부담 속에서 감정조차 느끼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상 속 아주 사소한 변화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새롭게 넣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두고 산책해 보거나, 자기 전 오늘 하루를 짧게 글로 적어 보는 것처럼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런 변화가 우리 일상에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생기 넘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귀찮고 별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 속에서 의미를 조금씩 발견하고, 스스로 하루에 관심을 가지게 된

다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함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석** 선우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3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나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제1회 녹동중학교 청소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42분)

○**의장 고준석**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녹동중학교 청소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20일 하루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회 녹동중학교 청소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고준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현시윤 의원과 이승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안(송하음 의원 외 3명 발의)

(14시43분)

○**의장 고준석** 의사일정 제3항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하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음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하음 의원입니다.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는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막는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조례안을 도입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공정성과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입니다.

학생은 차별과 학대 없이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학생 인권 존중 및 차별시스템 강화입니다.

조례를 통해 인권 보장과 침해 대응 절차

를 구체화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셋째, 인권 침해 및 차별 개선 조치입니다.

의무적으로 제공하여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가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넷째,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입니다.

학교 내 차별을 예방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학교 자체 규정에 적용하도록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교육청은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 초청,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고준석** 송하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찬** 안녕하십니까? 이은찬 전문위원입니다.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예방하며,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인권 보장, 차별 금지 의무화, 정기적인 인권 교육, 학생 자치기구와 협력을 통한 정책 반영, 교육청 및 지자체의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예방하는 데 있어 학교의 법적 의무와 교육적 실천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와 학생 자치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점이 기존 정책들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 인권 보호와 차별 예방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석** 이은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승현 의원께서 질의

를 신청했습니다.

질의방식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현 의원입니다.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학생 권리 보장과 차별 금지의 법적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법적 준수 여부는 누가 점검을 합니까?

또한 구체적으로 1년에 점검을 몇 번 실시합니까?

본 의원은 이 부분들이 구체화되어야 좀 더 효과적으로 학생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고준석** 이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윤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지윤 의원입니다.

이승현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승현 의원께서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1항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례안 제7조제2항을 보시면 교육청과 지자체는 각 학교가 학생 인권 조례와 차별 방지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분기별, 연간 평가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교육청이 법적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데, 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정기 감사나 특별 점검을 통해 학생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 조항 이행 여부를 살핀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부와 같은 교육 행정 기관들도 필요시 직접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 권리 보장과 차별 금지의 법적 준수 여부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되며, 이는 학생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 조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준석** 현지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먼저 의석에 있는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AI 및 로봇 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박서윤 의원 외 3명 발의)

(14시53)

○**의장 고준석** 의사일정 제4항 AI 및 로봇 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서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서윤 의원입니다.

AI 및 로봇 교육 강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기술을 배우고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에 맞춰 AI와 로봇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방과 후 수업이나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둘째, 관련 교사·강사에 대한 연수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AI와 로봇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관련 교사와 강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연수, 외부 전문가 초청 강의 등을 지원합니다.

셋째, 학교 내 AI·로봇 자율동아리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AI·로봇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배우고 실습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장비, 선생님의 지도를 지원합니다.

넷째, 고흥군과 연계한 체험활동과 대회 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고흥에는 항공·우주 연구기관이나 드론 관련 시설이 있어 이런 기관과 연계한 AI·로봇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직접 현장을 견학하거나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프로그램, 또 고흥군에서 주최하는 AI·로봇 대회를 열어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뤄 참가하고 실력을 겨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AI 및 로봇 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고준석** 박서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다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다온** 안녕하십니까? 류다온 전문위원입니다.

AI 및 로봇 교육 강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이러한 기술을 배우고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은 최신 기술을 배우고, 미래 직업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

는 기회를 얻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학생들에게 미래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해 미래 기술을 미리 경험하고, 혁신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기술 교육이 강화되고, 미래 직업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프로그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고준석** 류다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현시윤 의원께서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질의방식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시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현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시윤 의원입니다.

AI 및 로봇 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은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실습형, 문제 해결, 체험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육 방법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교육 시에는 어떤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수업에 포함시킬 건가요?

본 의원은 이 부분들이 구체화되어야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고준석** 현시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영 의원입니다.

현시윤 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4조제2항에서 실습형, 문제 해결 중심, 체험 중심의 교육 방식을 강조한 이유는 AI 및 로봇 분야가 단순한 이론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을 응용하는 능력이 핵심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AI 및 로봇 키트를 활용한 제작 실습,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학교 간 또는 지역 사회와 연계한 해커톤 및 경진대회 참여, 산업체와 연계한 멘토링 및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교육 내용과 방식의 구체화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 지역 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체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준석** 김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AI 및 로봇 교육 강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의사일정 제3항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AI 및 로봇 교육 강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AI 및 로봇 교육 강화를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준비로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녹동중학교 청소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고준석, 강한율, 장혜선, 김은찬,
선우송, 양채민, 박서윤, 현시윤,
김우영, 송하음, 이승현, 현지윤,

○AI 및 로봇 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고준석, 강한율, 장혜선, 김은찬,
선우송, 양채민, 박서윤, 현시윤,
김우영, 송하음, 이승현, 현지윤,

○출석의원 (15인)

고준석, 강한율, 장혜선, 김은찬,
선우송, 양채민, 박서윤, 현시윤,
김우영, 송하음, 이승현, 현지윤,
김성원, 정유민, 박시은

○녹동중학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강연우
전문위원 류다온
전문위원 이은찬
의사팀장 정유건

○기 록

김진호

보 고 사 항

[제1회 녹동중학교 청소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원발의

○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안
(2025년 5월 20일, 송하음 의원 외 3인 발의)

○ AI 및 로봇 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2025년 5월 20일, 박서윤 의원 외 3인 발의)

□ 본회의 진행계획

○ 3분 자유발언
① 장혜선 의원(3학년 2반)
② 김은찬 의원(2학년 2반)
③ 박시은 의원(2학년 3반)
④ 양채민 의원(3학년 1반)
⑤ 김성원 의원(2학년 3반)
⑥ 정유민 의원(2학년 2반)
⑦ 선우송 의원(2학년 3반)

○ 제1회 녹동중학교 청소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2인)
① 현시윤 의원(2학년 1반)
② 이승현 의원(2학년 1반)

○ 조례안 상정·의결
①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제안설명: 송하음 의원(3학년 3반)
㉯ 질 의: 이승현 의원(2학년 1반)
㉰ 답 변: 현지윤 의원(2학년 1반)
② AI 및 로봇 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 제안설명: 박서윤 의원(2학년 1반)
㉯ 질 의: 현시윤 의원(3학년 2반)
㉰ 답 변: 김우영 의원(2학년 2반)

제1회 **본회의회의록** 제 1호(부록)

(청소년의회)

녹동중 의회사무과

목 차

1.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송하음 의원 외 3명 발의) ····· 2
2. AI 및 로봇 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박서윤 의원 외 3명 발의) ····· 5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송하음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 송하음 의원
찬 성 자: 현지윤, 장혜선, 김은찬 의원

1. 제안이유

◯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예방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의무화(안 제3조)

다. 학생 인권 존중 및 차별 시스템 강화(안 제4조)

라. 인권 침해 및 차별 개선 조치(안 제5조)

마. 지자체 및 교육청의 지원(안 제6조)

바. 평가(안 제7조)

3. 참고사항: 해당없음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동중학교 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안팎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차별을 예방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녹동중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

제3조(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의무화) ①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③ 학생은 신체적 · 정서적 학대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학생 인권 존중 및 차별 시스템 강화)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명확한 절차를 마련한다.

② 교사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③ 학생 자치기구,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학생의 목소리를 정책과 학교 운영에 반영한다.

제5조(인권 침해 및 차별 개선 조치) ①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여 인권 감수성을 높인다.

② 학생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학교가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한다.

제6조(지자체 및 교육청의 지원) ① 교육청과 지자체는 학교 내 차별 예방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학교 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② 교육청은 차별을 예방하고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 콘텐츠 개발, 외부 강사 초청,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7조(평가) ① 학생의 권리 보장과 차별 금지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한다.

② 교육청과 지자체는 각 학교가 학생 인권 조례와 차별 방지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분기별 및 연간 평가를 실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I 및 로봇 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박서윤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 박서윤 의원
찬 성 자: 김우영, 선우송, 양채민 의원

1. 제안이유

◯ 빠르게 발전하는 AI와 로봇 기술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아 더 흥미있게 다가갈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 범위 및 AI와 로봇 교육에 대한 의무화(안 제3조 ~ 안 제4조)

다. AI와 로봇 교육 내용 및 개선 조치(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지자체 및 교육청의 지원(안 제7조)

마. 평가(안 제8조)

3. 참고사항: 해당없음

AI 및 로봇 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항공우주 시설 등과 연계하여 실생활과 연결된 체험 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AI"란 생각하고 배우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계를 의미한다.
2. "로봇"이란 사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거나, 스스로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녹동중학교에 적용된다.

제4조(AI와 로봇 교육 의무화) ① 매 학기 최소 2회 이상 실질적인 AI와 로봇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실습, 문제 해결, 체험 중심 방식으로 운영한다.

③ 개념 학습, 토론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AI와 로봇 교육의 중요성을 알린다.

제5조(AI와 로봇 교육 내용) ① AI와 로봇 기술이 익숙치 않은 학생들을 위해 기초 개념부터 학습한다.

② 상황극, 토론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③ 실생활에 활용되는 AI 및 로봇 기술을 조사·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 및 제작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제6조(AI와 로봇 교육 개선 조치) ① 교육 내용을 실용적이고 응용 가능한 형태로 강화한다.

②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도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수 및 지원을 확대한다.

③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제7조(지자체 및 교육청의 지원) ① 지자체와 교육청은 AI 및 로봇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필수 교육과목으로 지정하여 기초 교육 과정에 통합해야 한다.

② 모든 학교가 AI 및 로봇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및 인프라를 지원한다.

제8조(평가) 매년 AI 및 로봇 교육 운영 결과를 점검하고,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